



# 독서의 생활화로 평생교육을 도모케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한다

9월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독서의 달'이다. 가을이면 책을 많이 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가을 문턱인 9월을 독서하는 달로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을에는 독서를 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일 수도 있겠다. 30년 전 9월도 독서의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가득 채웠다.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이 '독서주간'으로 1974년은 벌써 20회째가 된다. 독서주간은 조선도서관협회와 국립도서관이 1949년 처음으로 제정하여 주최한 행사이다.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국립도서관, 부산시립도서관, 춘천시립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 등이 참여하여 포스터배포, 강연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 때 사용된 표어는 '오늘의 독서는 내일의 행복' 등 4가지였다. 그 후 6.25 전쟁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5년 다시 시작되었

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1주일에 걸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공동으로 제1회 독서주간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조선도서관협회에서 한국도서관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1949년의 독서주간을 승계하지 않고 1955년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회수를 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독서주간 기간 중에는 도서전시회, 전국도서관 무료공개, 방송강연, 방송드라마, 강연회 등의 각종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1962년까지는 196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월 중에 독서주간 행사를 가졌다가, 1963년에 9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1주일을 독서주간으로 정하고,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기간에 독서진흥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독서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독서주간은 방송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요즘에는 도서관에 대한 관심

은 많아도 방송이라든가 신문에서 주간이라고 해서 도서관 사람들이나 독서전문가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드문데, 수십년 연륜이 쌓인 전국적 행사치고는 그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1974년 독서주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찾아보았다. 그 해 독서주간은 “독서의 생활화로 평생교육을 도모케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포스터와 표어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라는 등의 여러 주제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좌담회를 가졌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무료개방되고 강연회, 독서발표회, 다독자 표창, 도서관이용자 좌담회, 입간판이나 현수막 게양,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지도 각종 유인물 배포 등의 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기록된 행사 종류로만 보면 요즘 4월의 도서관주간이나 9월 독서의 달에 도서관들이 하는 행사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주요한 저널들은 독서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주요한 독서지원 시설인 도서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데, 또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나 그 때나 문제의식이나 수준, 대책이 별반 차이가 없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독서수준은 낮다고 지적되고, 도서관도 여전히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영역으로 충분히 다가가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행사가 더 풍성하고 내실있겠다 싶고,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다. 당시 《도협월보》나 《도서관》에 실린 몇 구절을 통해 독서진흥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풀어가는데 도서관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하는 점을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독서주간이 되

면 독서경향이 어떠니, 독서환경이 어떠니, 도서관 시설이 어떠니 하고 떠들어 낸다. 일종의 푸짐(혹시 ‘푸념’을 잘못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인 것 같다. 그리고는 독서주간이 지나면 그동안 떠들어 낸 것들이 다만 떠든 것으로 끝나버리고 또 다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만다. 이러한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매년 거듭되어 어언 20년이 된 모양이다… (중략) 우리를 사서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직접적 본질이다. 더욱이 독서주간은 도서관인들이 설정해 놓은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서지도를 하려면 그 누구 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이다. 책을 읽어 보지 않고서 어찌 독서지도를 한다 할 수 있겠는가. 제20회 독서주간을 맞아 다시 한번 반성해 본다. 이러한 반성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짐하면서”(《도협월보》 KLA코너 “독서주간 유감” 중). 또한 “독서운동은 현재의 우리들 도서관원 자체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도 잘 정비되어 있고, 책에 문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도서관원이 스스로 독서를 즐기며, 그 즐거움을 지기(知己)로써 소화하여 다시 독서운동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수한 독서인이야 말로 참된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요원한 일 같지만 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도서관》, 이택준, ‘도서관과 독서운동’ 중) 나부터 시작하는 개혁, 독서운동에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30년 전 충고어린 지적이 오늘에도 유효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지 않을까.

책을 읽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몇 가지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다. 우선 전국 4개 전문

대학 도서관학과 학과장 회의가 9월 5일 대구 계명대학 도서관학과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의여자전문학교(한상완), 부산여자사립전문학교(임태삼), 계명대학 병설전문학교(김남석), 한국사회사업대학 병설전문학교(심의순) 등 4개 전문학교 학과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문학교 도서관학과와의 상호 유대강화와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결되었다고 한다. 우선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전문학교 도서관학과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도서관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 '전문학교 도서관학과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는 1975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 간사로 임태삼 선생을 선출하였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각 전문학교의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을 상호 유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가능한 한 일치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부족하거나 미흡한 전문학교 교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교용 도서관학 제분야의 교재를 빠른 시일안에 저술하여 출판하되, 학계의 인사 및 관련기관의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이제 전문대학 도서관학/문헌정보학과는 우리나라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본다.

국제적인 행사도 몇 가지 있었다. 우선 국제 문헌정보연맹/아시아·대양주 지역회의(FID/CAO) 제2차 대회 및 제3차 총회가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술정보센터 주관으로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제회의에는 국제문헌정보연맹 회장(독일 헬무르

아른츠 박사)을 비롯하여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대만(당시에는 '자유중국'이라고 했다. 이하도 같다.), 유네스코 아시아생산성본부(APO) 등에서 참가한 16명의 외국대표와 3명의 학국대표, 30여명의 내국인이 참석했다고 한다. 우선 제2차 대회에서는 "2차 산업분야의 정보"와 "농업 및 생물학 분야의 정보"가 주제로 다루어져 2차 산업정보사업 3개 항목, 농업과 생물정보 사업 4개 항목을 채택하여 건의하였다. 제3차 총회에서는 분야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개발도상국(FID/CAO/DC) 분과위원회의 경우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협의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 도서관들의 국제적 활동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국제적 위상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도서관계의 국제적 활동을 잘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중앙공보관에서 대만의 도서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근간 학술도서와 정기간행물 2,500여종이 출품되어 중국학 연구를 돕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유럽 예술서적 전시회도 열렸다. 교육자료의 교환을 통한 우호 및 협력증진을 위해 유럽공동체(EC)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 전시회에서는 영국 등 8개국의 4,000여 예술서적들이 출품되었다고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9월 1일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도서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개설했다는 소식이 눈에 띠었다. 이 도서실은 건평 10평에 장서 400

권을 소장한 곳으로 여성문화 발전을 위해 독서를 권장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사실 여성문화 발전에 도서관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사회운동, 특히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민운동 진영에서 도서관 부문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0년 전 작은 도서관 개실 소식이 새삼 중요하게 다가온다. 물론 매년 같은 질문과 함께,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영미목록규칙(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번역판이 9월 10일 발간되었다. 장일세(한국개발연구원 도서관장)와 김두식(동 연구원 사서) 사서가 번역한 것으로 경인문화사에서 발행하였다. 4·6배판에 양장, 422면으로 정가는 4,500원. ALA 목록개정위원회로부터 2월 정식으로 번역권을 획득하여 작업한 결과이다.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판(현재 AACR은 1978년 2판(AACR2)까지 발행되었고 1988, 1998, 2002년 수정되었다.)에 대한 번역본 출간은 없었다. 미국의 AACR 관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2004년 8월 현재 12개 언어로 16개 번역본이 출간된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계약이 만료된 것은 그 보다 더 많다) 이쉽게도 한국어 번역은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목록규칙을 4판까지 개발·발행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전세계적으로 기본적인 도구의 하나인 AACR의 번역본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생각해 볼 과제가 아닐까 한다.

지난 8월호에서 못 다룬 1974년 8월의 소식

이 하나 있었다. 제1차 아주도서관합작회의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대만 대북시에서 열렸다. 참가국은 대만, 홍콩, 필리핀, 미국, 태국, 한국 등이었으며 개회식에서는 장개석 총통이 축사를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영희, 박계홍, 박치욱, 이명희, 박대권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각국은 IFLA의 문헌목록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2.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종 상관되는 자료는 상호교환한다.
3.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교류를 추진한다.
4. 제2차 회의는 1976년 필리핀에서 개최한다.

대학원생의 국제교류 같은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았겠다 싶다. 1976년 필리핀에서 과연 제2차 회의가 열렸을까? 궁금하다.

9월을 제대로 보내야지 생각하고 책을 몇 권 읽었다. 그 중 한 권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정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남을 수정하는 것이 항상 더 바람직한 법이다." 여기서 남을 수정하는 것의 방식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나 자신을 스스로 수정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가는 방식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가을 초입, 책을 만지며 짹짹한 감촉을 즐긴다. 우리들의 결실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